

이 땅에 첫 선문 여니 실상은 한결 같아라



6 실상사, 변혁이끄는 기운 부흥불감

통일신라 말기의 대학자 고은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의 학식과 문장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이요 후대불급(後代不及)입니다. 신(神)의 심장소리를 빼앗고 천지의 기운을 총섭(總攝)해 운(韻)과 율(律)을 삼은 그의 문장은 사산비명(四山碑銘), 지리산 상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 만수산 성주사해회상백월보광탑비, 초월산 승복사지비, 회양산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에서 더욱 웅혼합니다.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에는 “도의(道義)가 서쪽으로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서당 지장의 깊은 법력을 보고 지혜 광명을 배워서 돌아 왔다”는 내용과 함께 도의 선사가 선법을 펼치지 못하고 깊은 곳에 몸을 숨긴 일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어 최치원은 “이 즈음 홍척 대사(洪陟大師)가 당나라에 가서 서당지장으로부터 수법(受法)하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남악(南嶽)에 머물렀다. 임금이 국태민안을 위해 법문을 청했고 대궐에서는 그가 온 것을 경하했으니, 선법을 보여서 아침의 법부가 저녁에 성인이 되게 함이니 변함에 차례(次第)가 있지 않으며 흥함이 갑작스러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서당 지장으로부터 법을 받고 귀국해 남악 즉 지리산 자락에 머물렀던 홍척 선사. 그는 해동에 처음으로 선문(禪門)을 연 주인공입니다. 육조 해능 선사로부터 남악회양 마조도일 서당지장으로 이어지는 선의 정맥을 받은 신라의 스님으로는 가자산문의 원조 도의 선사와 실상산문의 홍척 선사 그리고 동리산문을 연 적인 선사 해월 스님이 꼽힙니다(경덕전등록 권9, 정리하면, 이 땅에 선을 들어 온 초조(初祖)는 도의 선사지만, 선 도량을 처음 열어 아홉의 산(九山)으로 선의 문(禪門)이 활황(活況)토록 한 것은 홍척 선사였습니다. 그 첫 산문이 바로 남원의 실상사 실상산문(實相山門)입니다.

실상사는 산중에 아닌 평지에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심한 탓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탈교를 건너려는데 옆에서 누가 인사를 건네는 듯합니다. 왼쪽에 투박스러운 얼굴의 돌장승 하나가 서서 시비를 가는 듯 주먹코를 실룩거리며 웃어 보이는 것입니다. 눈길을 한 번 주는 것으로 답례를 하고 다리를 건너니 양쪽에 또 장승이 서 있습니다. ‘어쭙- 단만치 않은 걸?’ 최대한 혼스럽게 생겨먹은 그들에게 다가갈수록 눈길을 주고 셔터를 눌러대는 것으로 인부를 때웁니다.

일체의 가식을 벗어 던지고 실상(實相)으로 가는 해탈교를 지키는 돌장승들, 그들은 탐만 먹으면 푸석푸석 질집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아라한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다리목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좋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절을 찾아드는 고단한 중생들이 행어 물에 빠질까 걱



왼쪽부터 실상산문을 연 홍척 대사의 부도탑비와 부도, 수철 화상의 부도와 탑비.

“범부가 성인 되게 하니 흥함이 갑작스러워”

실상산문 첫 주인 홍척과 제자 수철의 부도 ‘단아하고 화려한 맛’

탑비는 몸돌 유실과 마멸로 원문 해독 불가능

정이 패서 다리목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실상사 경내에는 홍척 선사의 부도인 증각대사승료탑(證覺大師凝蔭塔, 보물 제38호)과 귀부와 이수만 남은 증각대사부도비(보물 제39호), 홍척 대사의 제자 수철 화상의 부도인 수철화상능가보월탑(秀澈和尚楞伽寶月塔, 보물 제33호)과 능가보월탑비(보물 제34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선맥이 시작되는 심장부에 첫 산문의 주역과 그의 직계 제자의 부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홍척 선사의 부도를 배알하기 위해서 천왕문에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연못을 지나 극락전이 있고 그 앞에는 증각대사부도비가, 왼쪽에는 증각대사승료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철 화상 부도와 탑비가 있는데 부도는 묘사체에 바짝 가까이 있고 탑비는 1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와 탑비 가운데 자리한 극락전의 원래 이름은 부도전(浮屠殿)이었습니다. 산문을 연 큰 스승들의 부도 사이에 이 건물을 지은 스님은 계오(戒悟) 대사로 조선 숙종 10년에 건물을 짓고 부도전이 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건물의 이름은 부도전(扶道殿)으로 바뀌었다가 1832년(순조 3)에 의암대사가 중건한 뒤 이름을 극락전으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극락전 앞의 대문은 청동조각으로 만든 양철잉어

를 문 가운데 달아 두어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극락전 아미타불께 삼배를 올리고 마당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며 세월을 따라 바뀌어 온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의 부도전(浮屠殿)이나 두 번째의 부도전(扶道殿)은 스승의 묘탑 곁에서 선맥을 받들고자 하는 의지가 다분합니다. 부도(扶道)를 직역하면 도를 받든다는 뜻이니 조사들의 선맥을 유지 계승하려는 의지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감이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극락전으로 바뀐 것은 조사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 보다는 사찰의 전체적인 당우 배치에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들의 묘탑이 있고 마천 방향도 서쪽입니다. 지금의 가람배치를 두고 볼 때 본당에 해당하는 보광전의 동쪽에 약사전이 있고 서쪽에 극락전이 있는 것입니다. 약사여래는 동방유리광세계의 주인이고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정토의 주인이니...

명확한 근거도 없는 혼자만의 생각을 극락전 마당에 내려놓고 홍척 선사 부도 앞에 씩니다. 겨울 햇살을 등지고 바라보는 부도는 단아하면서도 선명한 세부 조각이 화려하기만 합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으로 치석된 하대석부터 능숙한 석공의 솜씨가 눈길을 빨아들입니다. 중대석 안상을 장식한 팔부중

의 형상엔 위엄이 깃들어 있고 상대석의 연잎들은 지난 여름에 연못에서 따다 붙여 놓은 듯 합니다.

특이한 것은 탑신대입니다. 고인의 옹도로는 좀 높다 싶게 올려졌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탑신석이 높지 않습니다. 밑대와 탑신석의 높이가 합해져서 전체의 높이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깊이 없지만 섬세한 조각을 많이 쓴 부도다보니, 비교적 조각이 단순한 탑신석의 높이를 낮추고 밑대를 높이 놓아 화려하기 그지없는 기단부의 문양들을 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탑신에 해당하는 옥개석은 기왓골의 질감이 잘 살아 있고 아가지기한 눈 맛과 함께 안정감을 줍니다. 추녀 위에 있었을 귀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추녀 끝 모서리마다 귀꽃이 있다면 옥개석을 하늘로 사뿐 들어 올릴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해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극락전 앞에 있는 홍척 선사의 부도탑비는 몸돌을 잃고 귀부 위에 이수만 덩그러니 올려두고 있습니다. 거북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귀부, 떨어졌던 목을 다시 붙인 흔적이 먼저 눈에 들어와 안쓰럽습니다. 웅대하기 아니라 거북의 머리를 그대로 조형한 것이 이례로운데 그래서인지 화려하고 당당한 맛보다는 수더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뒤쪽에서 보니 등에는 육각의 귀갑문이 선명합니다. 뒷발도 꼼지락거리며 연못으로 들어갈 듯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수철 화상의 부도와 탑비는 신라 진성여왕 7년(893) 5월 수철 화상이 임직한 뒤에 왕이 내린 시호와 탑명을 받들어 조성한 것입니다. 탑비의 마멸이 심해 전문을 판독할 수 없습니다.

신라시대 부도의 전형인 팔각원당형을 따른 수철 화상의 부도 역시 단아한 안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대석부터 생동감 넘치는 운룡문이 장식됐고 상대석의 연잎과 탑신석의 사천왕과 문비, 옥개석의 기왓골과 처마의 비천상 등이 스승 홍척 선사의 부도 못 지않은 격조와 장엄미를 발산합니다.

실상사 사역(寺域)은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뒤쪽으로 난 논둑길을 걸어 수월암에 이르면 주인의 이름은 선명하지만 생애를 파악하지 못한 석종형 부도가 두기 있는데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월암을 지나 솔숲이 끝나는 곳에도 역시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 두기가 있습니다. 석종형은 비지정이고 팔각원당형은 보물 제36호로 지정됐지만 주인을 알 수 없어 ‘실상사부도’란 이름을 얻었을 뿐입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부도만 해도 화려함과 장엄미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팔각의 하대석에는 흰찬 옹트림이 조각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다시 실상사로 돌아와 왼쪽 산길을 걸어 약수암을 향해 걸읍니다. 오솔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왼쪽을 살피며 걸다보면 돌보는 사람이 없을 금방 알 수 있는 부도밭이 나옵니다. 독특한 모양의 부도 한 기와 균형이 잘 맞지 않은 석종형 부도 세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기단부는 물론 탑신부까지 모두 둥근 모양을 기본으로 조성돼 각(角)을 찾아볼 수 없는 부도의 이름은 ‘창조홍척제자안봉창조편운화상부도(創祖洪陟弟子安峰創祖片雲和尚浮屠)’입니다. 이 긴 이름의 주인 편운 화상은 수철 화상과 같이 홍척 선사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부도를 조성했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 부도들의 주변을 좀 정비하고 대점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를 타고 길을 되짚어 백장암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사역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삼층석탑(국보 제10호)과 석등(보물 제40호) 앞에는 울창한 부도밭이 서 있습니다. 모두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들이지만 백장암의 역사를 안으로 단단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백장암 마당 어귀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석종형 부도에서도 실상산문의 선맥을 지키고 있는 백장암의 내일이 빛나고 있음을 봅니다.

구산선문의 첫 도량 실상사는 아침의 범부를 저녁에 성인으로 만들어 내는 기운을 응축시키고 있습니다. 승공전자를 통한 올바른 수행도 상 확립을 목적으로 1990년 당간을 세운 ‘선우도량’과 새로운 시대 교육불사의 모범이 되고 있는 ‘화엄학림’, 연구와 수행 공동체 ‘화림원’, ‘귀농학교’와 ‘대인 학교’, 이 모든 불사의 동력은 바로 홍척 선사의 차례가 없는 선법인 것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 미묘한 향기가 지리산 자락에서 온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승비문>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단체협의회, 둘째매. <동서열전> 김윤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험> 정지현, 역사아문, 등.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지동 승강장치_ 대구 장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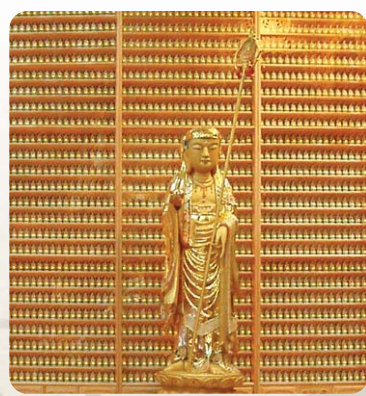
연등 지동 승강장치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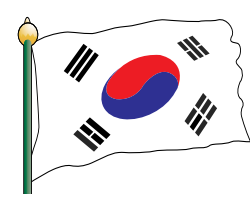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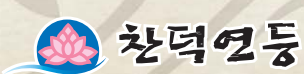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